

제11차 SCL  
(The Society of Construction Law)  
국제학술대회 참관기



임 정 주  
(주)공정계약연구원 대표

## 1. SCL (The Society of Construction Law)

The Society of Construction Law (이하 “SCL”)은 국제 건설산업에서 발생하는 법적·계약적 쟁점을 보다 전문적이고 공정하게 다루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 전문단체이다. 영국에서 출범했으나 현재는 아시아·유럽·중동·오세아니아 등 세계 20여 개 국가에 지부를 두고 있으며, 건설법 전문가, 변호사, 계약관리 전문가, 엔지니어, 감정인 등 다양한 실무자들이 참여하고 있다. 국내(www.sclkorea.org, 박기정 회장)도 각 분야의 전문가 30여명이 참여하여, 2020년 6월 설립되었는데, 건설법 관련 교육, 연구, 정보 제공과 출간 등의 활동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SCL은 건설분쟁 예방과 합리적 해결을 목표로 학술자료 발간, 세미나·컨퍼런스 개최, 표준 가이드라인 (Delay and Disruption Protocol) 제정 등을 통해 국제적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지연·방해/간섭·손해비용과 관련한 실무지침은 국제적으로 건설계약 및 중재 실무에서 널리 인용되고 있어서, 건설분쟁 분야의 핵심적인 전문기구로 평가받고 있다.

## 2. SCL 국제학술대회

SCL 국제학술대회는 세계 각국의 건설법 전문가, 계약관리 실무자, 중재인, 감정인 등이 한자리에 모여 최신 분쟁 트렌드와 기술·계약 이슈를 논의하는 SCL의 핵심적인 행사이다. 2년 주기로 개최되며, 각 회차는 개최국의 산업 환경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주제 중심으로 구성된다. 2023년에는 이스탄불에서 열려 유럽·중동 지역의 인프라 프로젝트와 국제중재 동향이 주요 의제로 다루어졌는데, 2025년 개최지로 한국이 선정되었다. 이에 앞서 국토 교통부, 서울시, 엔지니어링 협회, 한국플랜트산업협회, 대한상사중재원, 대한변호사협회, 해외건설협회, 공인중재인협회 (동북아시아) 등 다양한 국내 유관기관들이 11차 대회의 한국 유치를 지지하는 지지서한을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11차 SCL 국제학술대회는 올해 10월 22일부터 24일까지 서울(COEX)에서 개최되었는데, 약 400여명이 참석해서 메가프로젝트의 리스크 관리, 최신 지연·비용 분석 기법, 친환경 에너지, AI 기술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다.



### 3. 주요 내용

#### (1) 1일차

1일차에는 미국과 캐나다의 건설 전문 변호사들이 국제 건설계약과 분쟁의 핵심 이슈를 각각 도로 조명하였는데, 각국의 건설·중재 실무를 하나의 국제적 관점에서 비교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 ◆ 국제 건설법의 적용 방식

먼저, 국제 건설계약은 독립된 “국제 건설법”이라기보다, 서로 다른 법전통을 이해하고 조화시키는 방법론임이 강조되었다. 특히 준거법이 명확하지 않을 때, 중재판정부가 적용 가능한 법 규범을 선택하는 기준, 그리고 서로 다른 법체계가 결합된 프로젝트에서 ‘국제적 규범’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지가 주요 논점으로 다뤄졌다.

### ◆ 건설계약 핵심 조항 검토

두 번째로, 지연·변경·손해배상 제한 등 건설계약에서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조항이 체계적으로 검토되었다. 공정표 승인 의무, No Damage for Delay 조항, 변경지시 방식, 클레임 통지 기한 등은 발주자와 시공자가 참여하게 대립하는 계약조항으로 확인되었다.

### ◆ 청정에너지·대형 인프라 시장 변화

세 번째로, 글로벌 청정에너지·원전·풍력·수소 프로젝트 동향과 함께, IPD·Alliance 등 새로운 계약구조가 대형 인프라 사업에서 확산되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이는 기술 변화와 탄소중립 정책이 건설산업의 리스크 구조를 재편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 ◆ 실시간 분쟁예방 / DAB / Adjudication 등 프로젝트 기반 대체적 분쟁해결

네 번째로, 분쟁 예방 중심의 대체적 분쟁해결 메커니즘이 강조되었다. Partnering, 프로젝트 중재자, DAB·Adjudication 등은 갈등을 조기에 조정하고 현금흐름을 지키는데 효과적이며, 이러한 분쟁해결 수단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 국제중재 트렌드와 중재 효율성·AI 도입 논의

다섯 번째로, 국제중재 설문 결과를 통해 중재지의 아시아권 확대, 절차 지연·비용 증가 문제, 신속중재의 증가, 그리고 AI 기반 중재도구의 실무 도입 가능성이 주요 흐름으로 제시되었다.

◆ 대형 프로젝트 보험 리스크 구조

마지막으로, 대형 프로젝트에서 활용되는 PSPL (Project-Specific Professional Liability) 보험의 구조가 정리되었는데, 특히 다수 청구(Multiple Claims) 판단 기준이 실무상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2) 2일차

2일차에는 5개 Session이 진행되었는데, 계약구조, 주요 클레임 이슈 및 AI 기술과 관련하여 각 분야의 전문가가 주제 발표를 진행하였다.

Session	주 제
1	Evolving Standard Forms: Adapting FIDIC, NEC & Beyond
2	Collaboration as a useful tool for managing Giga Projects
3	Current Key Issues in Quantum / Disruption Claims
4	Current Key Issues in Delay Claims
5	AI and Innovative Technologies for Claims in the Future



### ◆ Session 1: Evolving Standard Forms: Adapting FIDIC, NEC & Beyond

첫 번째 세션은 사우디, 싱가포르, 그리고 국제 프로젝트에서 활용되는 다양한 표준계약의 변화와 리스크 관리 방식을 비교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먼저, 사우디의 민사거래법(CTL) 도입 이후 FIDIC 조항이 지체상금·책임제한·불가항력 등에서 어떻게 강행규정과 충돌하거나 보완되는지가 설명되었다. 특히 지체상금의 감액·증액 가능성과 불가항력 요건의 재정의 등은 계약 위험배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싱가포르 발표에서는 NEC4 기반의 협력적 계약이 확산되는 흐름과 함께, 분쟁관리 프로토콜, 조기통지, 성과 인센티브 등 로컬라이징된 조항들이 공공·민간 프로젝트의 효율성을 높이는 요소로 소개되었다. 이는 기존 FIDIC 중심의 접근을 보완하고 보다 협업지향적 구조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시되었다.

마지막으로 Cost Plus Fee 계약의 실제 위험이 다뤄졌는데, 겉보기에는 리스크가 낮아 보이나, 허용원가 정의의 모호성, 비용 증가와 수수료가 연동되는 이해상충, 불명확한 범위 등이 분쟁을 유발할 수 있음이 강조되었다.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오픈북 관리, 명확한 원가 기준, GMP·Target Cost 등 인센티브 구조의 재설계가 필수적이라는 점이 제시되었다.

### ◆ Session 2: Collaboration as a useful tool for managing Giga Projects

두 번째 세션은 초대형 ‘기가 프로젝트’에서 협업이 핵심 관리도구로 작동하는 방식을 다뤘다. 기가 프로젝트는 규모·복잡성·다수 이해관계자 등으로 인해 전통적 계약구조만으로는 리스크 통제가 어렵다. 이에 협업형 계약은 조기경보, 공동 의사결정, 투명한 정보 공유, 성과 기반 위험 배분 등을 통해 불확실성을 줄이고 실행력을 높이는 수단으로 제시되었다.

### ◆ Session 3: Current Key Issues in Quantum / Disruption Claims

세 번째 세션은 건설 프로젝트에서 방해/간섭(Disruption)이 초래하는 생산성 저하와 비용 증가를 어떻게 정량화하고 입증할 것인지에 대한 쟁점을 다루었다. 방해/간섭은 공기연장과 무관하게 발생할 수 있는 비효율·과다자원 투입·작업 순서 등을 대상으로 하며,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사건의 식별, 생산성 영향 분석, 비용 산정, 충분한 문서화가 필수적이다. 대표적 정량화 기법으로는 Measured Mile, Earned Value, 생산성 지수 기반 평가 등이 제시되었다.

입증자료로는 공정표, 작업일보, 자원투입 기록, 생산성 데이터, 비용 기록 등 상세하고 연속

적인 문서가 필수적이며, 전문가 보고서가 요구되는 경우도 많다. 실제 사례에서는 작업공간 부족·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가 있었음에도, 기초 자료 부족이나 부적절한 산정 방식(total cost method)으로 인해 청구가 인정되지 못한 사례가 소개되었다.

방해/간섭 클레임은 방대한 자료, 복잡한 인과관계, 고객의 이해 부족 등으로 인해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비용 대비 회수 가능성이 충분할 때에만 전략적으로 제기할 필요가 있다. 결국 성공적인 방해/간섭 클레임을 위해서는 명확한 기준, 실시간 기록, 인과관계 입증, 시각화된 설명, 전문가 검증이 핵심이라는 점이 강조되었다.

#### ◆ Session 4: Current Key Issues in Delay Claims

네 번째 세션은 지연분석의 핵심적인 이슈를 다루었는데, 먼저, 주공정(Critical Path)의 정확한 식별이 지연책임 판단의 출발점임을 강조하며, 공정은 시점별로 지속적으로 변동되기 때문에 단일 시점이 아닌 '진화하는 경로'로 이해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또한, 회고적 Time Impact Analysis 방법은 실무에서 불가피하게 사용되므로, 실제 진도와 합리적 예측을 구분하고, 위험사건을 Fragnet으로 모델링하여 기간별 인과관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개선방향이 제시되었다.

디지털·AI 기반 지연분석의 미래도 논의되었는데, 자동화 도구·기계학습·BIM·Reality Capture 등을 활용하면 대규모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하여 지연을 조기 감지·예방하는 체계가 구축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시되었다. 마지막으로 Delay and Disruption Protocol과 Forensic Schedule Analysis (AACE International Recommended Practice 29R-03)의 차이점과 유사점이 설명되었는데,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두가지 문서를 같이 활용하면, 국제중재에서 설득력 있고 방어 가능한 지연분석을 수행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되었다.

#### ◆ Session 5: AI and Innovative Technologies for Claims in the Future

다섯 번째 세션은 AI 기술이 향후 건설클레임·분쟁관리 방식에 가져올 구조적 변화를 다루었다. 먼저, 대규모 공사기록을 신속하게 정리·분류하는 AI의 능력이 기존 문서검토·증거정리에 소요되던 시간을 크게 단축시키며, 초기 단계에서 쟁점을 단순화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음이 강조되었다. 특히 자동화된 스토리 작성, 문서 중복 제거, 일정 논리 분석, 패턴 탐지 등은 전문가의 판단을 보조하여 보다 명확한 인과관계 분석과 일관된 클레임 구조화를 가능하게 한다.

또한, AI는 딥러닝 기반의 예측 분석을 통해 잠재 지연·결함을 조기에 감지하고, 실시간 현장 모니터링과 BIM 연계를 통해 사실관계 분쟁 자체를 줄이는 기능도 수행한다. 그러나 지나친 의존은 ‘블랙박스’ 문제, 데이터 편향, 증거 신뢰성 훼손, 절차적 공정성 논란을 초래 할 수 있어, AI의 활용 범위·설정값·근거자료를 투명하게 기록하고 인간 전문가의 검증을 필수 요건으로 삼아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 (3) 3일차

3일차에는 5개 Session이 진행되었는데,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 친화적 중재 및 재생 에너지와 관련하여 각 분야의 전문가가 주제 발표를 진행하였다.

Session	주 제
6	Expanding ADR Options (Adjudication, Dispute Boards & Beyond)
7	Expanding ADR Options (Mediation, Expert Determination & Beyond)
8	Options foe User-Friendly Arbitration in the Future
9	Green Energy Transition & Renewable Energy
10	Integration of Cultures and Regions

#### ◆ Session 6: Expanding ADR Options (Adjudication, Dispute Boards & Beyond)

여섯 번째 세션은 Adjudication과 Dispute Board(DB)의 글로벌 확산, 각국 제도의 차이, 그리고 분쟁 예방·해결 구조의 진화 방향을 중심으로 논의되었다. 먼저, “Pay Now, Argue Later” 원칙과 신속한 법원 집행 절차가 공정한 현금흐름 유지에 효과적임이 입증 되면서, 각국은 이를 변형해 자국 제도로 도입하고 있다. 반면 호주·뉴질랜드·싱가포르 등은 Security of Payment(SOP) 중심으로 범위를 조정하여 지급분쟁을 신속히 해결하는 방식으로 발전시켰다.

또한 캐나다는 대형 인프라 및 Public Private Partnership 사업에서 Dispute Board 활용이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상시 DB와 필요시 호출하는 DB 두 가지 모델을 비교하여 프로젝트 특성에 맞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특히 DB가 부재했던 대형 프로젝트의 실패 사례는 분쟁의 조기관리 부재가 공기·비용·관계 악화로 직결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로 소개되었다.

마지막으로, Dispute Board의 미래는 단순한 분쟁 해결기구가 아니라 사전적 분쟁 예방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정립되고 있으며, FIDIC 2017의 DAAB(Dispute Avoidance /Adjudication

Board)처럼 예방 중심 모델이 국제표준으로 굳어지는 흐름이 제시되었다.

#### ◆ Session 7: Expanding ADR Options (Mediation, Expert Determination & Beyond)

일곱 번째 세션은 국제 건설분쟁에서 중재·조정 역할 확대와 함께, 각국 제도의 차이가 실무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논의되었다. 먼저, 건설 프로젝트에서 제3자의 조기 개입은 오래전부터 활용돼 왔으나, 최근에는 조정(Mediation)이 신속성·비용 효율성·관계 유지 측면에서 주목 받고 있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특히 국제표준계약에서 다단계 분쟁해결 조항이 보편화되면서, 중재 이전에 협의·조정 절차를 거치도록 요구하는 구조가 강화되고 있으며, 조정조항의 효력은 국가별로 상이해 정교한 계약조항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어 싱가포르 협약(Singapore Convention on Mediation)은 국제적 조정 합의의 집행력을 강화하는 제도로 소개되었고, 미국·중국·한국 등 주요국이 가입함에 따라 국제 건설분쟁에서 조정 선택 가능성이 더욱 넓어지고 있다는 점이 논의되었다.

마지막으로, 베트남 사례에서는 조정제도의 법적 기반은 갖추었으나, 조정인 부족, 조정 문화 미성숙, 집행력 약화, DAB와 조정 개념 혼재 등 구조적 한계가 지적되었다.

#### ◆ Session 8: Options for User-Friendly Arbitration in the Future

여덟 번째 세션은 사용자 친화적 중재를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기술·전문가 활용 방식의 변화를 다루었다. 첫 번째 주제는 중재를 하나의 프로젝트로 관리해야 한다는 관점으로, 중재 진행 상 실패가 발생하는 원인으로 비현실적 기대, 자료 준비 부족, 기술 적용 미비 등이 지적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초기 전략 설정, 실질적 사전검토, 기술 활용, 중재인과 당사자의 협력적 태도가 필수적임이 강조되었다.

이어서 AI의 중재 활용과 위험관리로, 예측 분석·문서검토·요약·리서치·증거 분석 등 절차 효율성을 크게 개선할 수 있으나, 사실 왜곡, 증거 조작, 비밀정보 노출, AI 작성 문서의 집행력 문제 등 새로운 리스크도 크다는 점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국제기관의 AI 규범이 절차적 안전 장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발전 중이라는 설명이 이어졌다.

마지막 논점은 전문가 증거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Hot Tubbing(동시신문) 기법이었다. 기존의 '교차하는 일방의 주장' 구조에서 벗어나, 두 전문가가 동일한 시간·장소에서 중재인의 진행 아래 핵심 쟁점을 직접 논의함으로써, 쟁점 집중·전문가 의견 도출·절차 시간 단축을 목표로 한다.

다만, 성공적 운영을 위해서는 중재인의 기술적 이해, 발언 통제, 전문 가의 독립성 확보가 필수 조건이라는 점이 강조되었다.

#### ◆ Session 9: Green Energy Transition & Renewable Energy

아홉 번째 세션은 재생에너지 전환이 건설산업에 가져오는 변화 중 계약구조, 규제, 인프라, 수명관리 네 가지 핵심 주제를 다뤘다. 재생에너지는 특히 해상풍력에서 다계약 방식·복잡한 인터페이스·기후 리스크로 인해 명확한 위험배분, 표준화된 계약, Knock-for-Knock 구조가 필수적임이 강조되었다. 규제 측면에서는 인허가 중복, 송전망 불확실성, 로컬 콘텐츠 규정 변화가 주요 지연 요인으로, 한국은 통합 허가체계가 핵심 개선 과제로 제시되었다. 또한 성장 속도에 비해 항만·제조·케이블 등 온쇼어 (On shore) 인프라 부족이 구조적 병목으로 지적되었다. 마지막으로 2030~2040년에 약 2만기의 풍력터빈이 수명을 마치게 되어 디커미셔닝과 재전력화 (Repowering)가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 ◆ Session 10: Integration of Cultures and Regions

열 번째 세션은 문화·법체계·조직 관행의 차이가 국제 건설분쟁과 프로젝트 운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다룬 세션이었다. 첫 번째 논점은 서구권과 아시아·중동의 클레임 인식 차이로, 서구에서는 클레임을 합리적 위험조정 과정으로 보지만, 아시아 일부 지역에서는 관계·권력 격차가 우선하여 클레임 제기가 종종 “대립적 행위”로 받아들여진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두 번째는 아시아 건설시장의 문화적 다양성과 ESG 압력이었다. 위계 중심 의사결정, 위험의 과도한 시공사 전가 등 지역적 특성이 협업과 투명성을 제약하는 한편, ESG 요구의 강화가 지속 가능성·노동권·지배구조 개선을 새로운 표준으로 만들고 있다는 점이 논의되었다. NEC 등 협업형 계약은 이러한 문화·ESG 과제를 동시에 완화하는 실질적 도구로 소개되었다.

세 번째는 한국적 개념인 “눈치”를 프로젝트 관리 차원에서 재해석한 관점이었다. 눈치는 위계·침묵·간접적 표현 등 아시아 특유의 커뮤니케이션임을 설명하며, 적절히 활용될 경우 갈등 조기 탐지·부드러운 위험관리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점이 제시되었다.

마지막으로, 발주자 지시에 대한 신뢰 가능성과 기술기준 간의 충돌 문제도 다뤄졌다. 실제 국제 EPC 사례에서 부정확한 발주자의 지시가 수백만 달러 규모의 설계분쟁으로 이어졌으며, 시공사는 발주자의 지시를 따르더라도 최소한 안전·규정 준수 의무를 충족해야 하고, 모호한 지시가 있을 경우 기술적·문서적 검증 과정이 필수라는 점이 강조되었다.



#### 4. 맺음말

본 국제행사는 한강 보트 투어, 갈라 디너, 건축물 투어, 칵테일 리셉션 등 다양한 부대 프로그램이 함께 운영되어서, 한국의 매력도 같이 소개하는 행사로 구성되었다. 참가자들은 한강 야경과 현대 건축물의 혁신성, 수준 높은 행사 운영을 직접 체험하면서 한국이 전통과 현대를 조화롭게 결합한 문화적 역량을 갖춘 국가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경험은 단순한 교류를 넘어, 한국이 국제 건설계약·건설법 분야에서도 선진적 제도와 전문성을 갖춘 국가라는 이미지를 해외의 법조인·중재인·계약 전문가들에게 효과적으로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제12차 SCL 국제학술대회는 2027년에 두바이에서 개최될 예정으로, GCC 지역의 초대형 개발 사업, 계약구조 혁신, 그리고 국제중재 허브로서의 두바이의 역할 등이 주요 테마가 될 전망이다. 이와 같이 SCL 국제학술대회는 각국의 실무와 학계를 연결하는 글로벌 플랫폼으로서, 건설분쟁의 흐름을 읽고 국제 기준을 공유하는 자리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